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전시 'The Flat'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권 소 정

# 전시 'The Flat'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권 소 정

# 인 준 서

권소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전서 The Fiat의 정책성 연구

권소정





## 논문개요

예술행위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표현의 관점과 목적을 내포한다. 종교적인 믿음이나 염원의 표출, 철학적 접근, 또는 감상자와의 교감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의 하나로 본인 작품의 모티브(motive)가 되는 것은 작가 본인의 내면에 잠재된 기억이다. 사회의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지각(知覺)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분법적인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상적인 사건과 그와 연관된 인물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충돌, 혹은 제3자의 인물이 그 사건을 바라본 전혀 다른 관점 등은 쉽게 인지해 낼 수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다.

전시 'The Flat'에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대 사회 속에서 도구로 전락하여 버린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을 형상화함과 더불어 기존의 틀에 묶여 진부한 일상만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인간모습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단어 'Flat'의 확장된 의미를 주제로 표현했던 'The Flat'전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전시 'The Flat'에 관한 주제 설정의 배경과 의미들을 짚어 보고 표현방법 및 작품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향후 본인의 작업 방향과 더 연구해야 할 과제를 서술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주제설정의 배경 .....	3
2. 작품 표현 방법 .....	6
3. 작품 분석 .....	9
III. 결 론 .....	28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The One eye, 35 x 63cm, pen, acryl color on illust board, 2004 …… .....	9
【작품 2】 Flat, 81x101cm, oil pastel, charcoal, acryl color on illust board, 2004 .....	11
【작품 3】 Flat Man I, 81x101cm, oil pastel, charcoal, acryl color on illust board, 2004 .....	13
【작품 4】 Flat Man II, 81x101cm, oil pastel, charcoal, acryl color on illust board, 2004 .....	15
【작품 5】 Untitled, 44x17x9cm, Plaster, instant Coffee, 2004 .....	17
【작품 6】 Flat Man-Big eye, 222x42x153cm, Oil Pastel, Acryl color on board, latex, 2004 .....	19
【작품 7】 The Flat boredom, 45x55x160cm(20pieces), Mixed Material, 2004 …… .....	21
【작품 8】 The Flat Prosaic, 50x50cm, Charcoal on hemp cloth, 2004 .....	23
【작품 9】 Untitled, 45x55(x20, x60, x100, x120, x140, x150), Mixed Material, 2004 .....	25

# I . 서 론

영국의 철학자 로크(Locke. John, 1632~1704)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다.<sup>1)</sup>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군대에서는 군인으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또 더 나아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구성원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수직적 계층 관계나 경쟁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 중세시대에는 봉건제에 의해 주종관계가 성립되었고 1900년 초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근대에는 위정자들의 강압적 통치에 의해 인간성이 말살되었다. 현재 사회제도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황금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퇴색되어가고 점점 무조건적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요건과 상황들은 지식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창조적 의지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조형언어로 표현된다. 본인의 눈에 비춰지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구조와 틀 속에서 자기소멸과 정체성의 혼란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현상들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던 'The Flat'전의 연구목적은 작가 본인의 눈에 비춰진 인식, 혹은 인식되지 못하는 사회적 아노미 현상들에 대해 깊이 조망하고 단어 'Flat'이 가진 심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조형화 하는 것이다. 작업을 통해 특정 사회현상의 가치 판단을 하기 이전에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Flat' 이라는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뜻 외에 작가 본인이 갖게 된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고 표현하

---

1) 이재영, 로크의 언어 이론, 철학연구 12집, 1988 p. 232.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획일화 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찰하고, 이를 상징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주제설정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 본인 작품의 제작의도, 기법, 재료 등을 분석하였다.

## II. 본 론

### 1. 주제설정의 배경

우리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로 말미암은 생활방식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혼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는 19세기 초 산업화에 의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반면 인간의 정신적 내면세계는 물질적 풍요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본주의의 산물이자 원동력인 물질에 대한 추구는 현실적 목적지상주의와 맞물려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유교적 도덕체계나 윤리관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극심한 자기희의를 통해 자기 자신을 해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sup>2)</sup> 내적인 부분에서 점차 메마르고 여유를 잃어가는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문명에 의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사회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은 동 시대를 반영하면서 주변의 사물과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창작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현실의 삶을 재조명하여 살펴볼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지표로 삼아 발전을 꾀하기도 한다. 이에 인간이 세상에 존속되면서부터 생기는 사회적 중압감으로 자아를 상실해 가는 모습과, 단어 ‘Flat’이 가지는 보편적 관념 즉 납작하고 무미건조한 의미가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주관적인 해석과 표현을 통해 ‘Flat’의 개념을 조형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

2) 김인환, 산업화 바람 속의 예술문화-시각과 언어 1, 열화당, 1991, p. 108.

‘Flat’의 사전적 의미로 ‘편평한’, ‘납작한’, ‘기복이 없는’, ‘밋밋한’, ‘획일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음악에서 반음 내려주는 기호인 ‘b’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하는 ‘Flat’의 개념은 납작하게 짓눌려 있는 형상-길 바닥의 꺾이나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그보다 더 얇게 눌러있을 수 없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뜻한다. 잠재적으로 자유롭게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중압감에 눌러, 강압적으로 짓눌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 ‘The Flat’전에서 다루고자 했던 개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사회 속에서, 억눌리고 획일화를 강요받으며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정신적 갈등이 작품의 주제설정배경이다.

납작한 형상은 무한경쟁 시대 속에 개개인의 장점이나 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받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정해진 틀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춰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상식이라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현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기계발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북돋우기보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이 아닌 남을 의식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의 수학자 존 내쉬(John F. Nash Jr. 1928~)가 말하는 ‘균형설’에서 인간은 선택의 기로(岐路)에 있을 때 최소한의 손실을 감안(勘案)하더라도 안전하고 안정된 선택을 한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물리적 반응들을 겪고 많이 쌓아놓은 인간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 반응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화학적 반응 즉, 변화를 피하려 하고,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에는 사회라는 집단의 힘이 적용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택하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법, 관계, 고정 관념 등이 유지된다. 그렇듯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 또한 어떤 힘에 의해 눌러있는 ‘납작한 인간’ 일 수 있다.

“모난 돌 정 맞는다.” 는 속담처럼 사회의 틀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다수와의 부조화를 피하고, 단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개개인의 모습을 감추며 표현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도 전시 ‘Flat’ 에서 해석한 범주에 해당하는 ‘획일적인’ 의미와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작품표현 방법

석사학위청구 전 이었던 이번 전시 'The Flat'에서는 입체작업과 더불어 평면작업도 많이 도입하였다. 평면작업은 많은 목적을 갖기보다 눌러진 인간을 서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유리하여, 프레임(Frame)이라는 장치에 의해 상하좌우로 눌러 변형된 인간형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전시의 주제인 'Flat'의 의미는 현대에 목격되어지는 억눌리고 획일화 되어가는 인간상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표현의 매개체는 무미건조하고 납작한 인간의 형상을 띤다. 전시 작품 제작의 주요 표현 방법이었던 인체 변형의 근원을 원시미술에서 찾아보고, 다수의 작품에서 부각되어진 눈의 의미를 짚어보며, 전시 전체 분위기를 위한 색과 표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앞서 말한 본인의 'Flat'에 대한 이미지, 즉 납작하게 눌러있는 인간형상을 표현할 때,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 강조와 생략으로 변형된 인체를 조형화하였는데 이러한 조형방법은 원시미술과 맥락을 함께한다. “원시미술에서 자연의 세부형태는 대상이 지니는 가장 풍요한 뜻을 암시하기 위해서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져 있다.”<sup>3)</sup> 또 인체 각 부분에 대한 관념을 종합하여 특징을 표현하고,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묶어 그리며 세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기하학적 단순성을 볼 수 있다. 가시적 세계의 자극은 무한하고 동적이지만 재현의 수단과 매체는 제한적이고 고정된 것이라는 콰브리치의 주장, ‘재현의 한계’라는 개념<sup>4)</sup>과 같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사(傳寫)할 수 없기에 주관적 해석에 의해 형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체의 변형을 통해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 하고 'Flat'의 의미가 강조되도록 표현하였다.

3) Read Herbert, (박용숙 역), 예술의 의미, 문예출판사, 1994, p. 95.

4) 민주식, 콰브리치와 회화적 재현의 심리학, 인문연구 19집 1호, 1997, p. 229.

무엇보다도 본인의 드로잉에는 몸과 얼굴과의 비례에 비해 언제나 눈이 크게 과장되어 있고 항상 정면을 응시하며 부각되어져 있는데 이는 눈이 인체의 모든 부분들 중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눈의 양쪽 형태를 다르게 하거나 혹은 한 쪽 눈만 그리는 것은 동전에도 앞뒷면이 함께 있듯이, 내면과 외면을 보는 서로 다른 두 눈이 함께 있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눈을 통하여 자신을 보고 누우치며 세상을 동경한다는 상징이다. 사회의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 자기존재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왜소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 내면과 외면 모두를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더 넓게 바라보고 생각하려는 소망에서 조형화하였다.

전시의 분위기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나타내기 위해 전반적으로 슬프고 어둡도록 연출하였다. 음악에서의 'Flat' ('b')은 그것이 붙은 자리에 있는 음을 반음 내려줌으로써 곡을 단조로 만들어 전체 곡의 분위기를 슬픔으로 연출하듯이 나타내고자한 전시의 심리적인 무거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단조 느낌'의 작업을 위해서 차콜(charcoal)을 사용하여, 밝고 깨끗한 선보다는 검은 가루가 옆으로 퍼지면서 의도되지 않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선을 쓰고, 서너 가지 색을 항상 섞어서 채도를 낮추었다. "색채는 가장 직접적이며 감각적인 호소가 강요된다." 5)는 말과 같이 색채를 표현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두고, 색으로 본인의 주관적 생각과 감성을 작품에 투사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색채의 순수성을 말하는 채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연색보다 여러 색을 섞은 인공적인 색을 가지고 음악에서 단조곡과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작업에 세련되고 정밀한 기교적 표현보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충동이 아닌 무의식이 창조 작업의 진정한 동인" 6)이라는 피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

---

5) 허버트 리드, 앞의 책, p. 85.

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 활동에서 ‘의도적인 것들’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도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표현에서 자유로움을 표방(標榜)한다. 작품에서 뜻하는 현대인의 자기의지를 상실하고 억압된 심리와는 반대의 표현방법인 우연적 효과를 통해, 의지가 배제된 모호하고 몽환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재료-석고, 폴리코트 등-도 기본적으로 쓰지만 우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선호하여 구김을 줄 수 있는 라텍스, 석고에 바르면 겹겹이 색이 달라지는 커피, 구겨져 겹침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포대, 커다란 그림을 그릴 때 네모반듯한 종이 대신 갱지와 소포지, 골판지에 그림을 그리고,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는 목탄으로 하여 경계선을 분명치 않게 하는 것도 의도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

6) Lynton Norbert,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1999, p. 16.

### 3. 작품분석



【작품 1】 The One eye, Pen, Acryl color on board. 35 x 63 cm, 2004

【작품 1】 The One eye

제작연도 : 2004

재 료 : 펜, 아크릴 칼라, 일러스트보드

크 기 : 35 x 63 (cm)

“뒤통수에 눈이 달린 사람에게 앞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드로잉이다. 비틀거리며 움직이되 볼 수만 있고 말은 할 수 없는 형상이 어느 쪽이 앞으로 전진(前進)하는 것인가, 또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정면을 향해 되물으며 그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한 모습을 상징하였다. 낙서하듯 본능적으로 잉크를 떨어뜨리고 남아있는 잉크로 장난치듯 훑뜨려 보고 어린아이가 항상 눈, 코, 입을 그려 사람 형상을 만들 듯이, 자연스레 눈을 그리고 의미하고 싶은 것 외의 디테일은 모두 생략하였다. 또 방황하여 흔들리는 동적인 표현을 위해 윤곽이 흐트러진 선들을 테두리에 이용하였다.



【작품 2】 Flat, oil pastel, charcoal, acryl color on board, 81x101cm, 2004

【작품 2】 Flat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오일 파스텔, 목탄, 아크릴 칼라, 일러스트보드

크 기 : 81 x 101(cm)

온전한 두 얼굴이 아닌 얼굴의 절반만 보이는 두 사람이 좌우(佐佑)가 엇갈린 방향으로 누워있는, 아니면 서로 상하(上下)로 포개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는 모호한 구도로 공허한 표정을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인간이 소유한 기쁨, 슬픔, 아픔, 괴로움, 행복, 환희, 공포 등의 존재하는 많은 감정표현들을 배제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한 곳만 응시 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 현대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은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 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아무도 봐서는 안 되고 보여줘서도 안 되는 자신만의 내면공간에 다른 존재들이 은밀하게 출입함으로써 존 말코비치는 삶을 지배당하고 그 안에 들어간 존재들은 그를 통해 자신을 표출한다. 내면에 들어간 존재는 자신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존 말코비치의 육신과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 시키지만 그 자아를 조정하는 존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다. 존 말코비치 또한 정신적으로 말코비치 자신이 아니므로 그들 모두는 자아정체성을 상실하는 혼돈에 빠진다.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탕으로 이 그림이 구상되었다. 서로 엇갈린 얼굴 구도로 자신을 잃어버린 두 사람의 모습이 되고 두 얼굴을 합쳐 놓으면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이해되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3】 Flat Man I, oil pastel, Conte, acryl color on board, 81 x 101cm

2004

【작품 3】 Flat Man I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오일 파스텔, 콩테, 아크릴 칼라, 일러스트 보드

크 기 : 81 x 101(cm)

조립식 가구가 접합 부분마다 접혀 작은 박스에 넣어진 듯 더 이상 납작해질 수 없을 때까지 접혀진 인체가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네모난 평면 프레임(Frame) 안에 가득 채워 넣었다. 하나 더 있는 무릎에 의해 한 번 더 구부러지고 여섯 개의 손가락과 현저하게 휘어진 발목, 현실에서는 버틸 수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무릎과 발목이 휘어져 있음으로 잠재적으로 모든 관절을 다 펴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외부적인 힘에 의해 또는 자의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 인간을 상징한다.



【작품 4】 Flat Man II, oil pastel, Conte, acryl color on board, 81 x 101cm ,  
2004

【작품 4】 Flat Man II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오일 파스텔, 콩테, 아크릴 칼라, 일러스트 보드

크 기 : 81 x 101(cm)

성별조차 나타나 있지 않은 세 명의 사람들이 평면 프레임 크기에 맞게 납작하게 엮드린 형상으로 들어있고 모두 바깥세상을 동경하듯 정면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 뺨이 파리를 틀 듯 차곡차곡 쌓여있어 압축된 형태와, 근육에 근거하지 않고 표현된 명암으로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연출하였다.

사람들 셋이 쌓여 있을 때 중력에 의해 아래 있는 사람은 더 무겁게 눌러 있어야 할 테지만 비슷한 공간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서로를 밟고 밟히며 상하관계로 존속하지만 좌우를 상하로 보았을 때는 서로를 지탱하며 자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lat Man II에서 상징의 중점을 둔 것은 위아래로의 연속성이다. 위의 두 사람이 아래위로 마주보며 있고 밑에 한 명은 아래를 봄으로 화면 밖으로 더 많은 사람이 연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획일화된 인간상들이 공생하는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Untitled, Plaster, Coffee, 44 x 17 x 9cm, 2004

【작품 5】 무제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석고, 커피

크 기 : 44 x 17 x 9(cm)

제작방법 : 석고로 캐스팅 한 후 커피를 물에 개어 채색.

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것은 ‘부동성’이다. 석고로 캐스팅한 후 물에 갠 커피로 채색하여 폼페이와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주민들의 모습처럼 -화산재에 덮여 굳어져 버린 것처럼 납작하게 눌리고 땅에 입 맞추며 그대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굳어져 버린 모습과 같이 빛바랜 듯-표현하였다. 커피는 신경계통에 자극제로 작용해 정신의 활동력과 지각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에 역설적으로 커피의 검고 탁한 색을 인간형상에 채색함으로써 아주 오래되어 수분이 증발해버려서 움직일 수 없는 미이라 같은 형상으로 자아의 정신적 부동을 상징하였다.



【작품 6】 Flat Man-Big eye, Mixed Media, 222 x 42 x 153cm, 2004

【작품 6】 Flat Man-Big eye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오일 파스텔, 아크릴 칼라, 라텍스

크 기 : 222 x 42 x 153(cm)

제작방법 : 옆드려 납작한 인간의 형상을 라텍스로 캐스팅하고 배경은 골판지에 그리고 입체와 평면의 중간간계를 비스듬히 세워 다 같이 설치

한 사람이 얼굴을 벽 쪽으로 보이지 않고 역시 옆드려 있다. 이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나 거울 또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림으로써 바깥세상을 동경하고 회유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은 또다시 자신이 되어 순환된다. 주제의 표현방법을 모색하다가 거울 두 개로 반사하고 반사되는 여러 형상이 겹쳐져 한 번에 보이듯 평면과 입체를 같이 오버랩 시켜 한 방향에서 그 모습을 다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언가를 소유한 것이고 그러므로 가치적인 것은 그 무언가를 소모하는 소모품이다. 배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모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서 그 수명이 다 하듯 소모품은 영원할 수 없다. 인간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수명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다. 생 뱀쥐베리의 소설 어린왕자에서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인다.” 7)는 말과 같이 사회현실 속의 왜소해 보이는 존재들도 개개인의 내면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다.

---

7) Antione-Marie-Roger de Saint-Exupery, (김현 역), 어린王子, 문예출판사, 1974, p. 86.



【작품 7】 The Flat boredom, Mixed Media, 45 x 55 x 160cm (20pieces),

2004

【작품 7】 The Flat boredom

제작연도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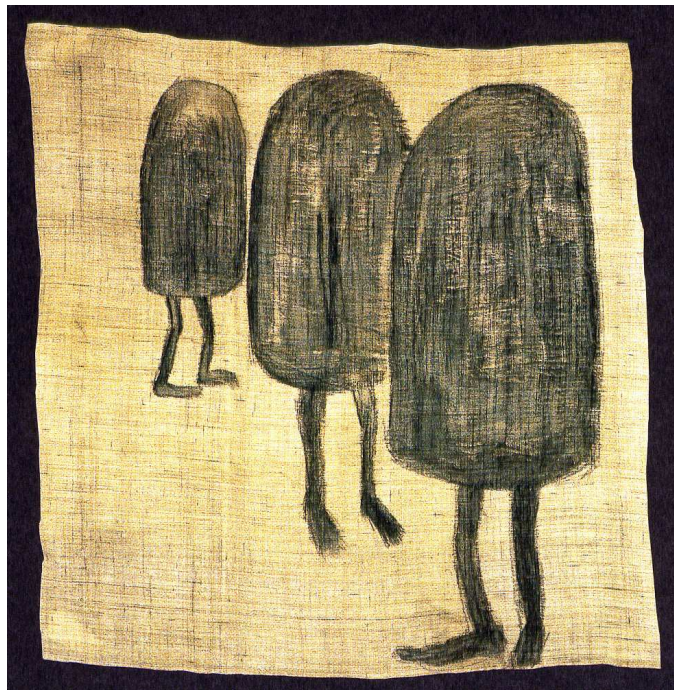
재 료 : F.R.P. 페인트, 커피포대, 스티로폼

크 기 : 45 x 55 x 160(cm) (20개)

제작방법 : 흙으로 다리 만들어 F.R.P로 캐스팅 후 스티로폼을 깎아서 상체 모양을 만든 후 커피 포대를 그에 맞게 재단하여 씌운다. 캐스팅 된 다리부분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 한다.

커피 포대자루를 쓴 형상들이다. 무엇을 머리부터 뒤집어쓴다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결혼식 때 쓰는 면사포의 유래는 신랑으로부터 신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쓰는 여러 종류의 베일들 또한 여러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이유에서였다. 또 군인들이 쓰는 모자는 같은 모자들로 군 인원을 획일화 시키는 효과를 주고 또 사람들이 가끔 모자를 쓸 때는 지저분하거나 이상이 있는 머리를 감추려는 이유에서도 모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보호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자루를 뒤집어 쓴 형상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보호의 수단으로 자신을 격리시키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안정을 찾고 지금 모습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앞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서로가 가까이 군집되어 있지만 자신이 만든 틀에 가려져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채 그 자신도 바깥을 지각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자기보호막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리지만 그로 인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다면, 점차 사라지게 되는 존엄성으로 자신의 삶 또한 군중들 속에 일반화 되어 사라질 것이다.



【작품 8】 The Flat <Prosaic>, Charcoal on hemp cloth, 50 x 50cm, 2004

【작품 8】 The Flat <Prosaic>

제작연도 : 2004

재 료 : 목탄, 삼베

크 기 : 50x50(cm)

제작방법 : 목탄으로 삼베 위에 그리고 흘뜨림.

인격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고 다리의 형태조차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어떤 개체를, 그 중에서 특징적인 한 부분으로 전체 이미지를 연상하여 그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서있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이라고 상징한 개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드로잉이다.

자루를 뒤집어 쓸 때는 손과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쉽게 썼었지만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개체들은 자루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안의 행동이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밖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듯이 그들 또한 밖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자루를 만들어 쓰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점점 개인화되고 단체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문명의 끝없는 진보로 사람이 사람과 대면하기보다 사람이 기계와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이 느끼는 고독한 외로움과 자괴감을 자루를 뒤집어 쓴 형상으로 상징하여 장례식 때 수의로 쓰이는 삼베 위에 드로잉하여 나타내었다.



【작품 9】 Untitled, Mixed Media, 45 x 55(x20, x60, x100, x120, x140, x150)cm(가변적 설치), 2004

【작품 9】 Untitled

제작연도 : 2004

재 료 : F.R.P. 커피포대

크 기 : 45 x 55(x20, x60, x100, x120, x140, x150)cm

제작방법 : 다리를 F.R.P로 캐스팅 한 후 그 위에 스티로폼을 얹어 사람의 머리, 어깨, 대략의 이목구비가 나타나도록 깎는다. 그런 뒤 재단하여 삼베로 만든 자루를 투명 F.R.P에 적셔서 깎아놓은 스티로폼 위에 발라 그 형태대로 굳힌다.

드로잉 [작품 8] The Flat <Prosaic>을 기초로 [작품 9] Untitled가 입체로 만들어 졌고 함께 설치하여 전시 하였다. 삼베로 된 자루를 쓰고 있는 형체가 여섯 단계로 자루 안에서 한 소실점을 향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자루만 흔적으로 남기고 사라지는 형상의 작품이다.

초고속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점점 개인적으로 변하고, 가족들과 있는 시간보다는 텔레비전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기 보다 컴퓨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등 기계를 접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세계 안에 고립시켜서 우울함과 자괴감을 느끼며 자신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을 자아의 상실, 소멸로 보고 자루 속에 감추어진 자아가 점차 사라지며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형상으로 조형화 하였다.

소멸하는 것은 슬프다.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소멸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으로써 존재가치의 의미를 부여받지만 정체성의 상실은 생명체의 정신적 죽음으로 육체적 소멸보다 더한 의미를 갖는다. 죽은 사람을 감싸는 재료로 쓰였던 삼베를 자루로 만들어 인

체의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덮어 점점 사라진다. 하지만 반대로 남아 있는 흔적에서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고 사라지는 순환으로도 보여 진다.

### Ⅲ. 결 론

미술은 단순히 사물의 본질과 의미를 반복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시각과 사고에 의해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시각언어이다. 일상 속의 사물과 현상을 돌아보며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하면서 정서적 내면의 표현에 의해 새로운 관점과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창작활동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시 'The Flat'의 주제설정 배경을 사회가 정해 놓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억압받는 침체된 현대인의 모습에서 찾아보고, 납작하게 눌린 변형된 인체의 모습과 외면을 감싸는 자의적 막을 통해 자아를 숨긴 획일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시되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제작방법을 분석하였다.

첫 개인전이었던 이번 전시를 통해 감상자들 또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서글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사회 속 인간의 부정적인 단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내면을 해석하여 표현하는 작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전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창조 해낸 작품들을 전시장 한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감상자들과 정서적 소통을 이루고 그 의미가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통해 전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가변적이고 다양한 무게의 재료를 이용하여 연출되는 많은 효과들을 알게 됨으로써 재료의 다양성 역시 배우게 되었다. 또한, 어쩌면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쏟지 않았던 인간의 모습을 깊이 조명(照明) 해 보며, 밖으로 드러

나지 않는 인간의 어두운 단면까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면서 내면 속의 심상(心想)과 표상(表象)을 물질로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보다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작업을 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참 고 문 헌

김인환, 산업화 바람 속의 예술문화-시각과 언어 1, 열화당, 1991

민주식, 고프리치와 회화적 재현의 심리학, 인문연구 19집 1호, 1997

심윤중, 현대사회와 인간, 지학사, 1985

이재영, 로크의 언어 이론, 철학연구 12집, 1988

Antione-Marie-Roger de Saint-Exupery, (김현 역), 어린王子, 문예출판사, 1974

Berger John, (강명구 역),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나남출판, 1987

Heller Eva, (이영희 역), 색의 유혹 1, 예담, 1989

Leonhard Adam, (김인환 역), 원시미술, 동문전, 1990

Lynton Norbert,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1999

Read Herbert, (김기주 역), 예술의 뿌리, 현대미학사, 1998

Read Herbert, (박용숙 역), 예술의 의미, 문예출판사, 1994

# ABSTRACT

## A formative Plastic study of the Exhibition, 'The Flat'

### - Centering around My Work -

Kwon, So Jung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stic performances in substance involve a variety of viewpoints and goals of expression. There are many creative activities performed, including faith and wish, philosophical approaches, and communicative approaches through the medium of sympathy with an appreciator.

What is the motive of works as one of these categories is artists' own memory underlying their mind. They intend to express human life with failure to perceive their living confined to an invisible social convention in many aspects by excluding dichotomy to the utmost. For example,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daily cases often seen around us and people associated with them and third parties' opposite viewpoints on them are not easily perceived but exist undeniably. My first private exhibition for a master's degree, The Flat, embodied self-identity of modern people who became a tool in the modern society, which exists but fails to be exposed, and suggested human life with meaningless repetition of commonplace routines confined to the existing conven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my works, which symbolize self-portraits of modern people, in three chapter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presents goals and methods of this study on the formative nature in The Flat, which is an exhibition with the theme of meanings of 'Flat.'

Chapter 2, Main Subject, suggests backgrounds and meanings of the theme of The Flat and explains expressions and works.

Chapter 3, Conclusion, summarizes this study and explains future courses of my works and further studies.